
I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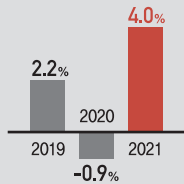
1. 실물경제	3
2. 금융·외환시장	16

2021 한국경제

성장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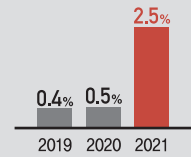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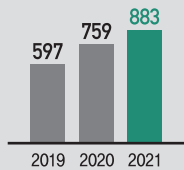
2.5%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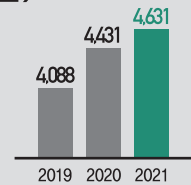
경상수지

883억 달러(흑자)



외환보유액(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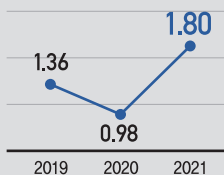
4,631억 달러



금리(연말 기준)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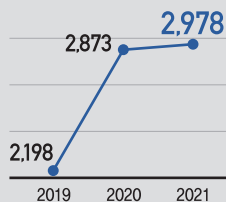
국고채(3년)



주가(연말 기준)

2,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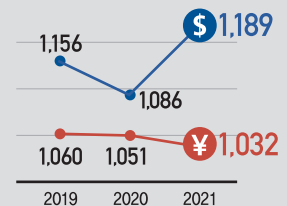
KOSPI



환율(연말 기준)

\$ 1,189 원/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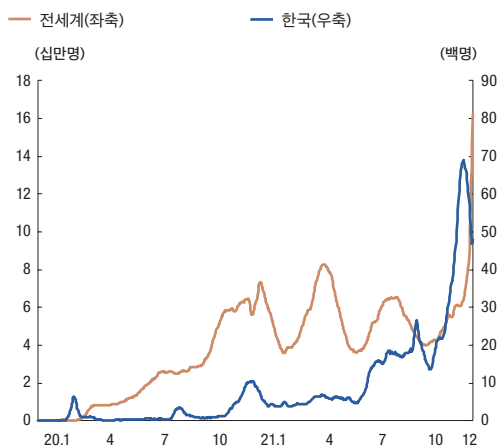
¥ 1,032 원/100엔



1. 실물경제¹⁾

2021년 세계경제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각국의 방역조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경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재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은 백신 보급을 확대하고 완화된 방역체제로 전환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말 들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대두되고 확진자 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국내에서도 7월 중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거리두기 시행과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방역조치를 완화하였다. 연말경에는 델타 변이 재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확진자 수가 큰 폭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유보하고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여타 변이에 비해 낮아 경제회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림 1 -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¹⁾



주: 1)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Worldometer

가. 세계경제

세계경제 회복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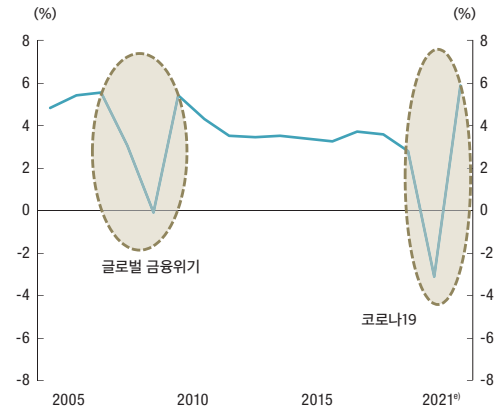
2021년 중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회복흐름이 지속되었다. 세계 GDP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보다 빠르게 반등한 5%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²⁾³⁾. 이는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된 데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고 상품 교역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 2021년 중 경제 동향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의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3월호, 2021년 6월호, 2021년 9월호, 2021년 12월호, 2022년 3월호.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세계경제는 IMF 통계를 기준으로 5.4% 성장하였으며,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IMF 5.9%, World Bank 5.5%, OECD 5.6%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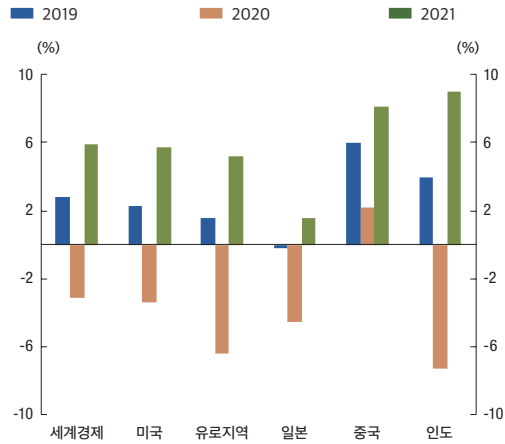
3) 세계경제 성장률(실질, IMF기준): 2019년 2.8% → 2020년 -3.1% → 2021년 5.9%*

그림 1 - 2.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IMF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와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성장흐름을 이어갔다. 유로지역은 연초 감염병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위축되었다가 백신접종 확대와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반등하였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긴급사태 선포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반복되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회복흐름이 미약하였다. 신흥국 가운데 중국은 상반기 중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형다사태⁴⁾로 인한 부동산경기 위축, 전력난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여타 신흥국의 경우 인도는 하반기 이후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ASEAN 국가들의 경우 상반기 중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회복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1 - 3.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¹⁾

주: 1) 세계경제, 유로지역, 일본 및 인도의 2021년 성장률은 IMF(2022년 1월) 추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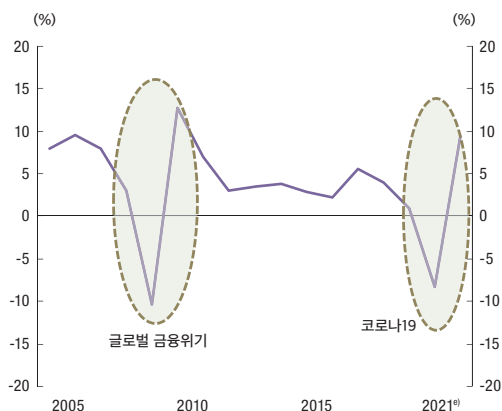
자료: IMF, 각국 통계청

세계교역 회복세 지속

2021년 세계교역도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⁵⁾. 상품교역은 상반기 중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개선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서비스교역은 2020년 중 출입국 통제 강화로 크게 위축되었던 여행서비스가 입국제한 완화로 회복되고, 운송서비스도 상품교역 증가로 늘어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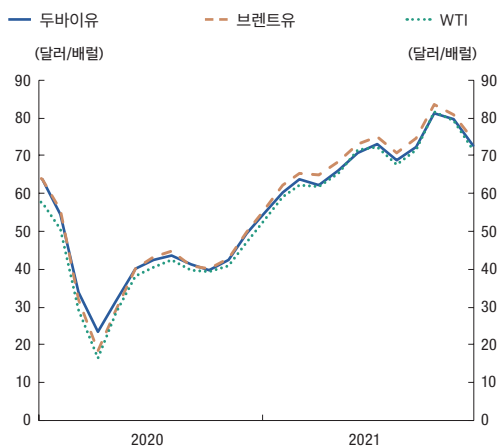
4) 중국 부동산개발기업 형다그룹은 2021년 9~12월 중 지급예정이었던 달러채 이자와 위안화채 이자를 여러 차례 미지급하였으며, 2021년 10월 4일 홍콩증시에서 형다그룹의 주식거래가 중지되었다.

5) 세계교역 신장률(IMF기준): 2019년 0.9% → 2020년 -8.2% → 2021년 9.3%^{e)}

그림 1 - 4. 세계교역 신장률 추이¹⁾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기준
자료: IMF

그림 1 - 5. 국제유가 (월평균)



자료: Bloomberg, Reuters

국제유가 오름세 지속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감염병 재확산으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⁶⁾. 상반기에는 백신보급 확대, 주요국 대규모 재정지출 등에 힘입어 원유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데다 OPEC+의 감산공조가 지속⁷⁾되면서 상승흐름이 이어졌다. 8월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원유수요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60달러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상승하면서 11월 중에는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인 80달러 중반 수준을 기록하였다. 12월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로 유가가 다시 60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주요 산유국의 증산이 더디게 진행⁸⁾되면서 연말에는 70달러 중후반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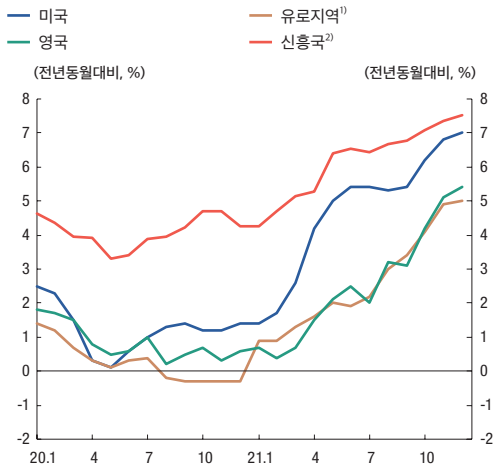
2021년 중 미국, 유로지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에서도 식료품가격 상승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6) 연평균으로 2020년 배럴당 42.2달러에서 2021년 배럴당 69.0달러로 상승하였다.

7) OPEC+의 감산공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와 별개로 2~4월 중 일평균 100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실시하였다.

8) 친환경 기조 확대 등으로 미 세일업체의 신규투자가 지연되었으며, OPEC+도 8월 이후 일평균 40만 배럴씩 증산하였으나 수요 회복세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림 1 - 6.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1) HICP 기준

2)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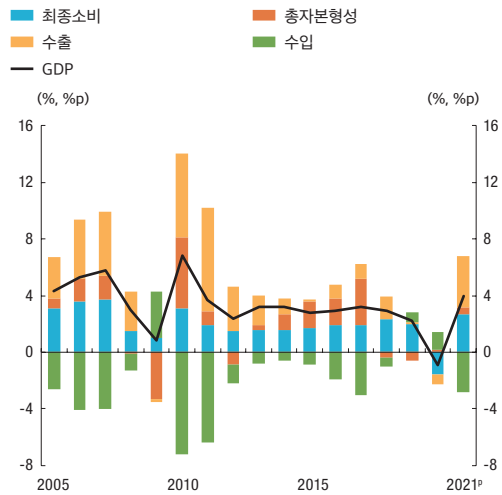
자료: 각국 통계청

나. 국내경제

(1) 경제성장

국내경제 빠르게 회복

2021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 경제활동 재개 및 확장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4.0% 증가하였다⁹⁾.

그림 1 - 7.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실질)¹⁾

주: 1) 2020년, 2021년은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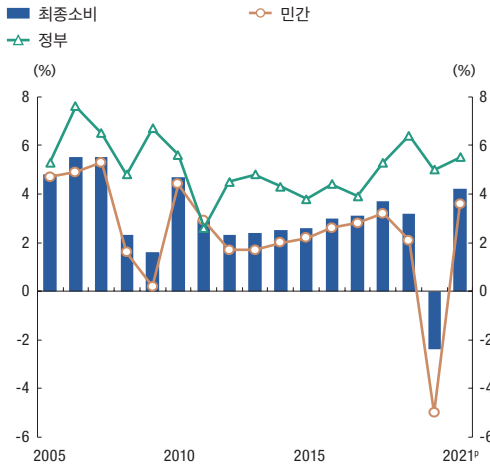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최종소비지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모두 늘면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¹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중 크게 감소(-5.0%)하였던 민간소비는 3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지원정책과 백신접종 확대 및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9) GDP 성장률(실질): 2019년 2.2% → 2020년 -0.9% → 2021년 4.0%

10)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실질): 2019년 3.2% → 2020년 -2.4% → 2021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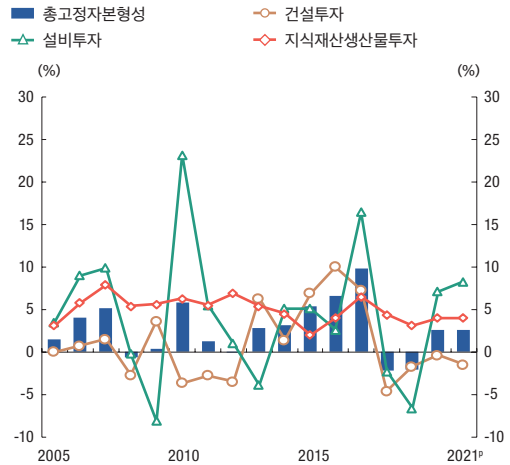
그림 1-8. 소비 동향 (실질)



자료: 한국은행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건설투자가 줄었으나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¹¹⁾.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비대면 IT수요 확대에 힘입어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다. 다만 운송장비 투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로 자동차 투자가 제약되면서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차질 등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4.0% 증가하였다.

그림 1-9. 고정투자 동향 (실질)



자료: 한국은행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재화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다¹²⁾. 재화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대부분의 품목과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출도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서비스 수출 호조 등으로 확대되었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감염병 우려로 여행 서비스가 부진하였으나 국내의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재화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¹³⁾.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

산업별 생산(GDP 기준)을 보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이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흐름¹⁴⁾을 보인 반면, 건설업은 2018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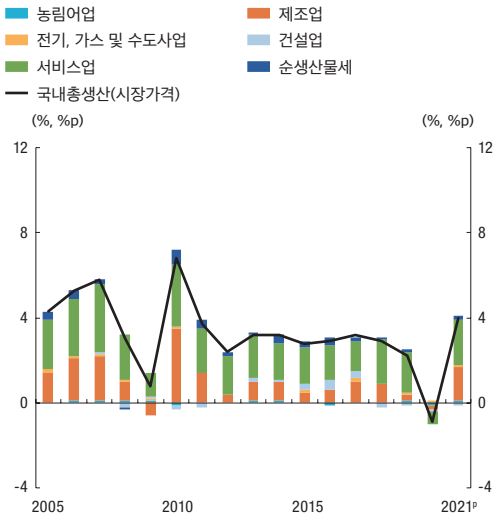
11)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실질): 2019년 -2.1% → 2020년 2.6% → 2021년 2.6%

12)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실질): 2019년 0.2% → 2020년 -1.8% → 2021년 9.9%

13)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증가율(실질): 2019년 -1.9% → 2020년 -3.3% → 2021년 8.5%

14) 12월에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역정책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림 1 - 10.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실질)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13.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6.6%)을 기록하였다. IT 부문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비IT부문도 국내외 수요 회복,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표 1 - 1.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2008	2009	2010	2019	2020 ^p	2021 ^p
제조업	3.5	-2.3	13.6	1.1	-0.9	6.6
화학제품	0.3	3.1	11.1	-0.9	0.7	6.1
1차금속	-8.0	-4.3	15.3	-0.9	-3.9	5.0
금속제품	-9.5	-9.9	9.2	-1.8	-7.0	-3.6
컴퓨터, 전자 및 광학	9.2	5.9	19.6	6.4	3.9	12.8
기계 및 장비	6.6	-7.9	23.5	-0.9	2.2	10.0
운송장비	10.5	-15.3	11.8	1.9	-9.1	5.3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2020년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세부업종별로는 대

면서비스업이 방역조치 완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표 1 - 2.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2008	2009	2010	2019	2020 ^p	2021 ^p
서비스업	3.9	2.0	5.1	3.4	-1.0	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	-0.5	6.9	3.5	-5.7	3.3
운수업	4.8	-4.5	13.1	1.7	-15.1	5.2
금융 및 보험업	6.1	5.8	3.0	3.4	9.1	6.1
사업서비스	5.8	1.6	7.7	2.6	-0.4	2.8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3.7	7.8	6.7	9.8	1.3	4.8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토목건설과 전문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은 2.7% 증가로 전환하였고,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4.9% 증가하였다.

(2) 고용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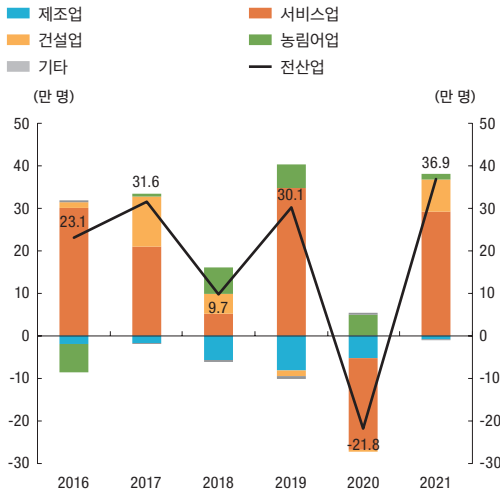
취업자수 큰 폭 증가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36.9만 명)하는 등 빠르게 개선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운수창고업,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였다. 제조업 고용은 국내경기 및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소폭 감소하였 으며, 건설업 취업자수는 증가로 전환하였다.

그림 1 - 11.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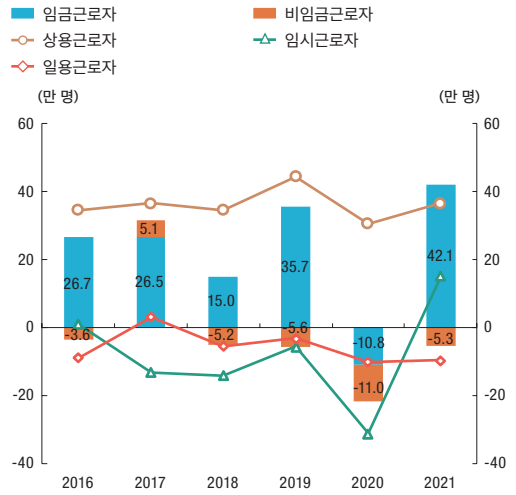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용직 및 비임금 근로자 고용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연령별로는 15~29세 및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30~59세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상당폭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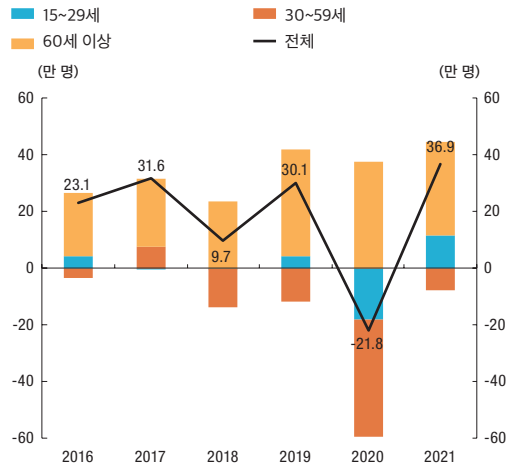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0.4% 포인트 상승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3%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8%로 전년보다 1.2%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1 - 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1 - 13.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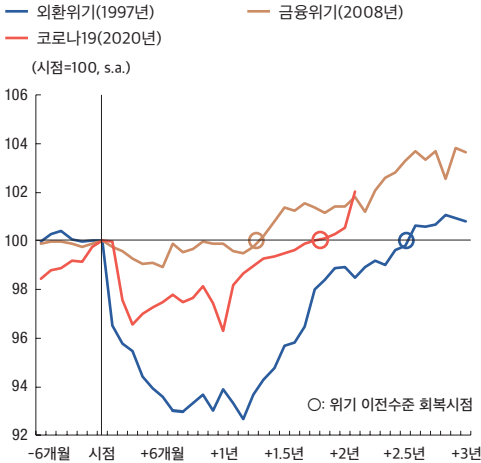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취업자수(계절조정)는 2020년 중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뒤 2021년 2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1년 10월에는 2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수준을 회복하였다. 과거 경제위기 시와 비교하면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금융위기

(16개월)와 외환위기(31개월)의 중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1 - 14. 위기별 고용경로¹⁾



주: 1) 위기 발생시점은 외환위기 1997년 12월, 금융위기 2008년 11월, 코로나19 2020년 1월
 자료: 통계청

표 1 - 3. 고용 관련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활동인구 (만 명, %)	2,742	2,775	2,790	2,819	2,801	2,83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0	1.2	0.5	1.0	-0.6	1.1
경제활동 참가율	62.9	63.2	63.1	63.3	62.5	62.8
취업자수	2,641	2,672	2,682	2,712	2,690	2,727
취업자수증감	23.1	31.6	9.7	30.1	-21.8	36.9
실업률	3.7	3.7	3.8	3.8	4.0	3.7
(15~29세)	9.8	9.8	9.5	8.9	9.0	7.8
고용률	60.6	60.8	60.7	60.9	60.1	60.5
(15~64세)	66.1	66.6	66.6	66.8	65.9	66.5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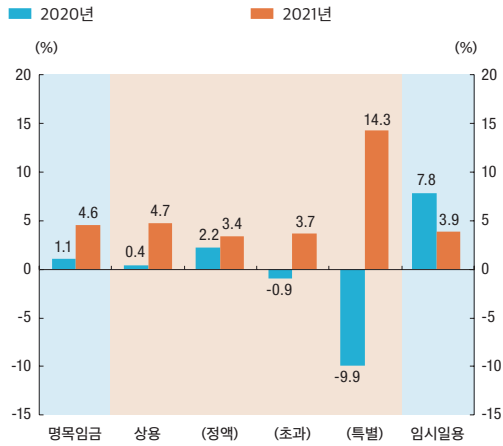
임금 상승폭 반등

명목임금은 4.6% 상승하여 2020년(1.1%)의 부진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2018~19년 평균 4.4%)으로 반등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경기회복,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용직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직했던 저임금 근로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시간당 명목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1 - 15.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표 1 - 4. 임금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명목임금 ¹⁾	3.8	3.3	5.3	3.4	1.1	4.6
(실질임금) ²⁾	2.8	1.3	3.7	3.0	0.5	2.0
시간당명목임금 ³⁾	5.1	5.2	6.8	3.9	2.6	4.5
노동생산성 ⁴⁾	3.1	3.9	4.5	1.9	1.7	2.7
단위노동비용 ⁵⁾	2.0	1.3	2.2	2.0	0.9	1.8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3) 물가

소비자물가 오름폭 크게 확대

2021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전년대비)로 전년(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물가안정목표(2.0%)를 상회하였다. 특히 4/4분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3.5% 상승하며 2011년 4/4분기(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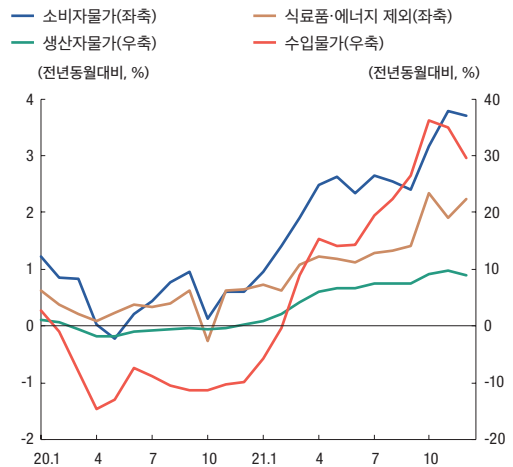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확대는 유가, 농축산물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주도한 가운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높아진 데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농산물가격이 한파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축산물가격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정내 수요증가, 수입육류 공급차질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대비 8.7% 상승하였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 전환하였으며(-7.3% → 15.2%), 석유류제외 공업제품가격은 전년에 이어 0%대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들어 가공식품,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연초 전기료 인하로 상반기 중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전년 7월의 도시가스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 전환한 후 4/4분기 들어 전기료 인상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서비스물가는 2.0% 상승하며 전년(0.3%)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집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서비스물가가 상승 전환하였으며(-1.9% → 1.0%), 개인서비스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외식을 중

심으로 오름세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1.2%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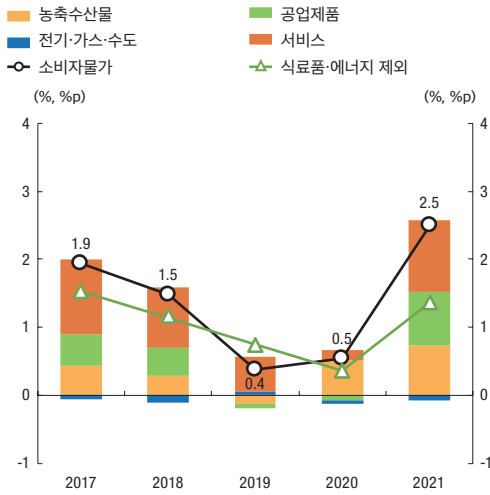
2021년 중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년(0.4%)보다 상당폭 높은 1.4%를 나타내었다. 특히 물가상승압력이 근원품목으로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구조적 물가 오름세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4/4분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를 상회하였다.

그림 1 - 16. 주요 물가지표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 - 17.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주택매매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11월 이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중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9.9%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하반기 상승률이 상반기 수준을 상회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하반기 들어 상승률이 소폭 둔화되었다.

주택 전세 및 월세 가격도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연중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1 - 5. 주택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05~09 10~14 15~19			2021			
	평균	평균	평균	2020	연간	상반	하반
주택매매가격	5.7	1.6	1.3	5.4	9.9	4.7	4.6
<수도권>	9.3	-1.0	2.4	6.5	12.8	5.9	6.1
<비수도권>	1.8	4.6	0.3	4.3	7.4	3.6	3.3
주택전세가격	4.0	5.6	0.7	4.6	6.5	3.0	3.2
주택월세가격	-0.6 ¹⁾	1.1	2.6	1.0	1.6

주: 1) 2016~19년 평균(시계열이 2015년 6월부터 시작)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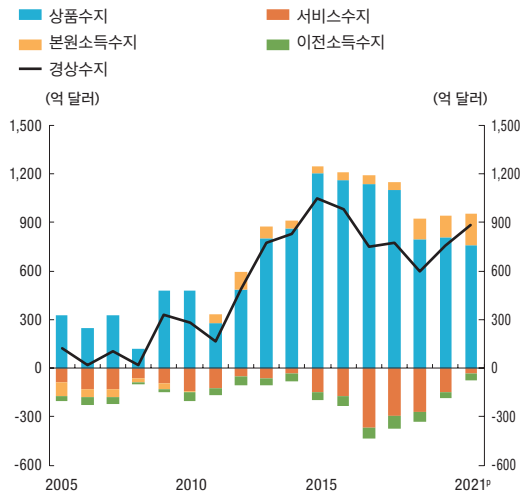
(4)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되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확대된 88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⁵⁾. 상품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상운임 급등으로 운송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폭이 줄었으며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를 통한 배당수입이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15) 경상수지: 2019년 597억 달러 → 2020년 759억 달러 → 2021년 883억 달러

그림 1 - 18.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상품 수출 호조

수출(통관 기준)은 역대 최고 수준¹⁶⁾인 6,44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었는데 IT제품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디지털경제 확산에 힘입어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IT제품 수출의 경우 주요국의 수입수요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화공품, 석유제품 및 철강이 크게 늘어나고 자동차¹⁷⁾도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표 1 - 6. 주요 품목별 수출

	2020		2021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 제품	3.8	<35.8>	24.0	<35.3>
반도체	5.4	<19.9>	28.1	<20.2>
무선통신기기	-6.4	<2.6>	22.8	<2.5>
디스플레이패널	-12.2	<3.5>	18.9	<3.3>
컴퓨터	46.0	<2.5>	27.0	<2.6>
비IT 제품	-10.0	<64.2>	26.7	<64.7>
자동차	-14.1	<10.9>	23.8	<10.8>
석유제품	-40.2	<4.8>	57.0	<6.0>
화공품	-1.2	<13.0>	38.1	<14.3>
기계류	-8.1	<10.1>	10.5	<8.9>
선박	-2.0	<3.7>	16.9	<3.5>
총 수출 ¹⁾	-5.5	[5,125]	25.7	[6,444]

주: 1)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상품 수입 큰 폭 증가

수입(통관 기준)은 6,1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1.5% 확대되었다. 원자재 수입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유, 가스 및 철강재를 중심으로 급증하였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반도체·반도체장비 및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6) 종전 수출액 최고치는 2018년의 6,049억 달러였다.

17) 분기별로는 2021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완성차 생산 및 수출이 부진하였다 (일평균 완성차 수출 금액: 2021년 1/4분기 1.84억 달러→2/4분기 1.73억 달러→3/4분기 1.59억 달러→4/4분기 1.80억 달러).

표 1 - 7. 주요 품목별 수입

	2020		2021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18.8	<44.1>	46.7	<49.2>
자본재	7.4	<37.9>	20.2	<34.6>
전기·전자기기	4.6	<22.5>	21.5	<20.7>
기계류·정밀기기	14.2	<12.4>	20.9	<11.4>
(반도체제조장비)	62.8	<3.7>	50.1	<4.3>
소비재	-0.4	<18.0>	18.3	<16.2>
총수입 ¹⁾	-7.1	[4,676]	31.5	[6,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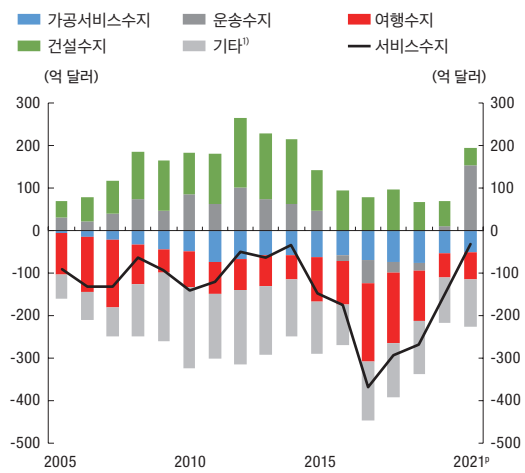
주: 1)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2001년¹⁸⁾ 이후 가장 작은 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⁹⁾. 이는 운송수지가 글로벌 공급병목에 따른 화물운임 상승과 국적선사의 선박 확충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고 여행수지 적자규모도 내국인의 해외관광 위축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폭 하회한 데 주로 기인한다. 가공서비스수지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그림 1 - 19. 서비스수지



주: 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 여타 서비스수지 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5) 지역경제동향²⁰⁾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른 권역에서도 석유화학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도소매업 및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수요동향²¹⁾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촉진정책 등에 힘입어 전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제조업 업황 호조 등으로 2020년 하반기의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모든 권역에서 여전히 기준치(100)

18) 2001년 서비스수지는 -2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 서비스수지: 2019년 -268억 달러 → 2020년 -147억 달러 → 2021년 -31억 달러

20) 2021년 중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지역경제보고서(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3월호, 2021년 6월호, 2021년 9월호, 2021년 12월호.

21)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착공면적이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거용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서는 상업용 건물 착공이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하였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상업용 및 공업용 건물 착공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은 2020년의 기저효과 및 주요국 경기회복, 건조한 IT수요 등에 힘입어 전 권역에서 두 자릿수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동남권에서는 석유화학·정제 및 자동차, 호남권에서는 석유화학·정제 및 철강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수가 모든 권역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실업률도 대부분 권역에서 2020년 대비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상승하고 공업제품이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서비스물가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전 권역에서 2020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가계대출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제주권에서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 재건축 이주 등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표 1 - 8. 2021년 권역별¹⁾ 주요 지표^{P)}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강원	제주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²⁾	13.2	1.3	3.5	9.0	5.8	-0.6	0.8
서비스업생산지수 ²⁾	5.1	3.2	3.0	2.7	3.4	4.0	2.6
수요							
소매판매액지수 ²⁾	3.1	2.0	1.6	1.4	2.0	1.1	3.8
설비투자 BSI ³⁾	99	93	97	98	93	95	97
건축착공면적 ²⁾	6.6	27.6	20.1	-4.6	3.4	22.6	24.8
수출 ⁴⁾	22.4	26.2	25.8	43.9	20.4	34.9	45.8
고용							
취업자수 증가 ⁵⁾	24.8	1.5	3.4	2.8	2.5	1.5	0.5
실업률	4.1	3.7	2.6	2.6	3.5	3.6	3.1
물가							
CPI ⁶⁾	2.4	2.5	2.7	2.6	2.7	2.8	2.6
주택매매가격 ⁷⁾	12.8	8.5	8.5	5.3	6.3	6.4	6.6
주택전세가격 ⁷⁾	7.7	6.2	7.3	3.3	4.6	4.3	5.3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기준치=100

4) 통관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5) 전년대비 증가(만 명)

6) 전년대비 상승률

7)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부동산원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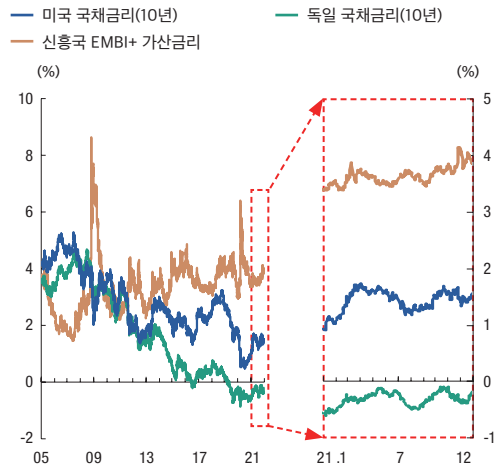
장기금리 상승

2021년 중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4분기 중 미국의 경기부양책(6차) 시행 및 대규모 인프라투자 계획 발표²²⁾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 전망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²³⁾ 2/4분기 들어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²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반락하였다. 그러나 8월 들어 미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 가시화²⁵⁾ 및 글로벌 공급병목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으로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11월 이후 연말까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전망²⁶⁾ 등이 엇갈리며 등락하였다. 독일 장기금리는 미국 장기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ECB의 통화정책 정상

화 움직임²⁷⁾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신흥국의 EMBI+ 가산금리는 선진국의 장기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등락하는 가운데 11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 우려 및 일부 취약신흥국의 금융불안²⁸⁾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1 - 20. 주요국 국채금리 및 EMBI+ 가산금리



자료: Bloomberg, JP Morgan

22) 바이든 정부는 약 1.9조 달러 규모의 제6차 재정지원법(American Rescue Plan)을 시행(3월 11일)하였으며, 곧이어 약 2.2조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안(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였다(3월 31일).

23) 3월 31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연중 최고치인 1.74%를 기록하였다.

24) 미 연준은 4월 FOMC 회의에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가 더 진전될 때까지 기존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담회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에 대해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4월 28일).

25) 8월 18일 공개된 7월 FOMC 회의록에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향후 경제 상황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2021년 중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26) 미 연준은 11월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를 매월 150억 달러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12월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폭을 확대(매월 150억 달러 → 300억 달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모든 참석자가 2022년 중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9월 회의에서는 18명 중 9명이 금리 인상을 전망)하였다(12월 15일).

27) ECB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021~23년 중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PEPP(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를 예정대로 2022년 3월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12월 16일).

28) 터키는 높은 물가상승률(CPI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2020년 12월 14.6 → 2021년 8월 19.3 → 12월 36.1)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9~12월 중 500bp)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 가치가 급락(미 달러화에 대해 9~12월 중 37.2% 절하)하고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

표 1-9. 주요국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 bp)

	2020		2021		
	3월	6월	9월	12월	
국제금리(10년물)					
(미국)	0.91	1.74	1.47	1.49	1.51
(독일)	-0.57	-0.29	-0.21	-0.20	-0.18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¹⁾	222	203	189	188	186
(신흥국 CDS 프리미엄) ²⁾	150	186	156	182	187
(신흥국 가산금리) ³⁾	338	370	356	373	386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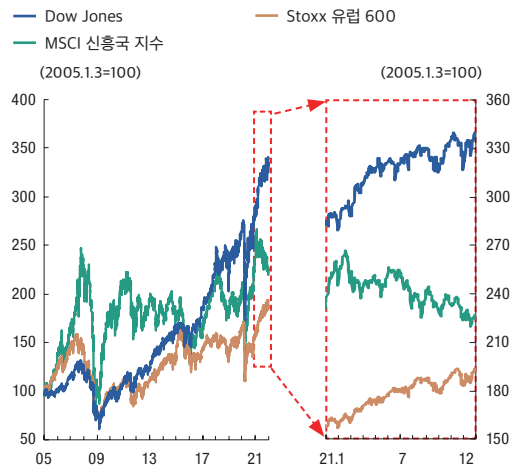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 움직임 차별화

미국 주가지수(다우지수)는 1/4분기 중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강화,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²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³⁰⁾. 다만 9월 중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³¹⁾ 등의 영향으로, 11월 하순에는 오미크론 변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큰 폭 하락하기도 하였다.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도 미국 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전년 말 대비 22.2% 상승하였다.

반면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투자심

리 약화, 낮은 코로나19 백신 보급률 및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중국의 부동산 개발기업 부실 우려³²⁾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4.6% 하락하였다.

그림 1-21.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강세

2021년 중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³³⁾. 미 달러화는 1/4분기 중 미국 장기금리 상승 및 경기회복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4-5월에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및 유로지역 경기개선 전망³⁴⁾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약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는 미국과 유로지역

29)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의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가운데 각각 87%, 86%, 82%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30) 미 다우지수는 2021년 말 36,338를 기록하여 전년 말(30,606) 대비 18.7% 상승하였다.

31) 9월 FOMC 회의에서 2022년 및 2023년 중 정책금리 인상을 전망한 참석자가 6월 회의 당시에 비해 각각 2명(7명 → 9명) 및 4명(13명 → 17명) 증가하였다(9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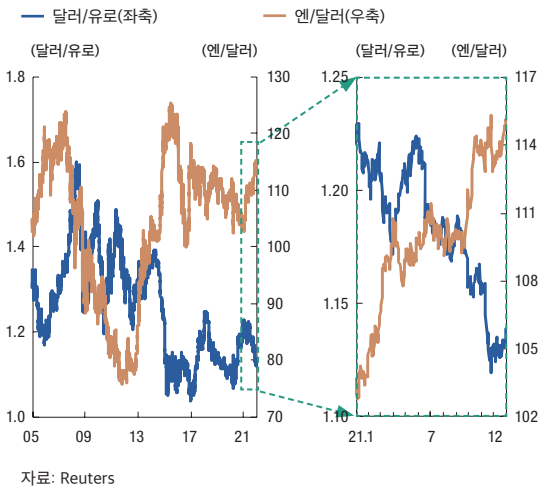
32) 6월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영업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과도한 차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헝가리은행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화 우려가 확산되었으며, 12월 7일 주요 신흥평가사들은 헝가리은행의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다.

33) 연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유로화에 대해서는 7.4%, 엔화에 대해서는 11.7% 절상되었다.

34)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중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을 전망을 상향조정하였다(3.8% → 4.3%, 5월 12일).

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및 경기회복세가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림 1 - 22.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나. 국내금융시장

(1) 금리

장기금리 큰 폭 상승

2021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³⁵⁾. 시기

별로 보면 3월 중 국내외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한 이후 5월 말 국내 경제성장을 전망치 상향 조정³⁶⁾,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재차 상승하였다. 하반기 들어서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다만 11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전환 속도둔화와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³⁷⁾ 등으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하반기 들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을 반영해 나가면서 상승하였다.

회사채(3년) 신용스프레드(국고채 금리 대비)는 하반기 들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등으로 비우량물 위주로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 6월 중순 국고채 지표물 교체³⁸⁾ 영향으로 큰 폭 축소된 이후 우량물(AA-)은 종전 수준으로 회귀한 반면, 비우량물(A-)은 높은 금리 유인과 수익추구 성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하반기에는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0월 들어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신용채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빠르게 확대되었다. 연말에는 기관들의 북클로징으로 인한 매수세 부진 등이 더해지며 확대 폭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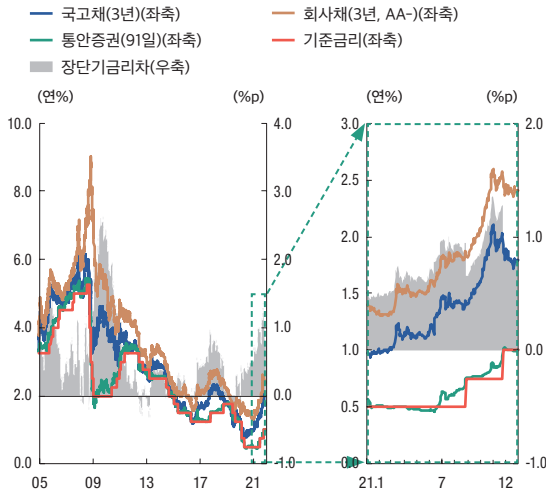
35) 2021년 말 1.80%로 2020년 말(0.98%) 대비 82bp 상승하였다.

36)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4.0%(5월, 한국은행)로 상향 조정(3.0%, 2월)하였다.

37) 한국은행은 1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중도환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10월 28일)하였으며,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11월 5일)하였다.

38) 6월 10일 신용스프레드 산정 기준이 되는 국고채(3년) 지표물 변경 이후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신용스프레드가 10bp 축소되었다. 이는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잔존만기가 6개월 더 긴 신지표물의 선호가 낮아 국고채(3년) 금리가 일시에 크게 상승(9월 1.14% → 10월 1.28%)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1 - 23.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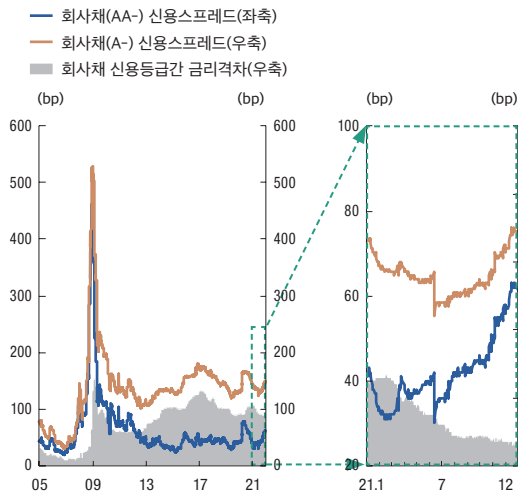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은행 여수신금리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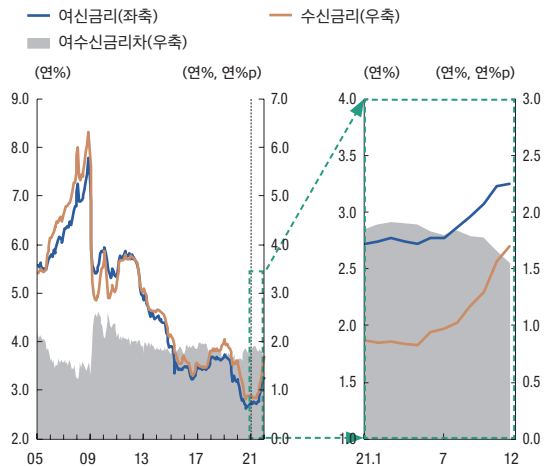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2021년 12월 중 여신금리는 3.25%로 2020년 12월(2.74%)에 비해 0.51% 포인트 상승하였다. 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금리가 2021년 12월 중 3.14%로 전년동월대비 0.41%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가계대출금리는 0.87% 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하였다³⁹⁾. 2021년 12월 중 은행 수신금리는 1.70%로 2020년 12월(0.90%)에 비해 0.80% 포인트 상승하였다. 여수신금리차는 여신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상당폭 축소되었다.

그림 1 - 24.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²⁾



주: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2) 회사채(3년, A-)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1 - 25. 은행 여수신금리¹⁾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39)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등에 영향 받아 기업대출금리보다 큰 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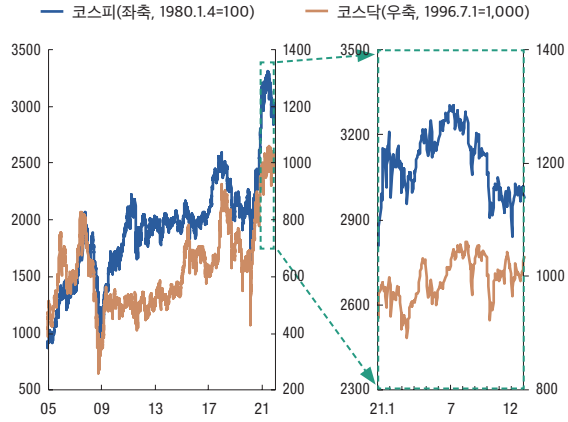
(2) 주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후 하락 전환

코스피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로 글로벌 요인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에는 미국 신정부의 재정책대 기대,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코로나19 재확산,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다소 조정받았다. 3월 하순부터는 국내외 경제 지표 개선 및 기업실적 호조 기대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재차 상승하여 7월 초 사상 최고치를 경신(7월 6일 3,305)하였다. 그러나 7월 중순 이후 양호한 수출실적 및 국내외 기업 실적 호조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반도체 업황 둔화,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⁴⁰⁾하면서 연간으로는 2020년 말(2,873)에 비해 3.6% 상승한 2,978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등락하여 2020년 말(968) 대비 6.8% 상승한 1,034로 마감하였다.

그림 1 - 26.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및 비은행 수신 증가폭 확대

은행 수신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시입출식예금은 2020년에 비해서는 증가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예비적 동기 및 투자대기자금 수요 등으로 예년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기예금은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은행의 정기예금 유치 노력, 예금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로 전환하였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전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부동산, 특별자산 등 기타펀드에 대한 자금유입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식형 펀드는 하반기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직접투자 축소 등으로, 채권형 펀드는 전년 크게 확대되었던 신용 경계감의 완화 등으로 상당폭 증가로 전환하였다. 다만 MMF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다.

40) 2021년 11월 30일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연중 최저치(2,839)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 대비 상대적 금리 메리트 등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었다.

표 1 -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은행 수신 ¹⁾	79.5	91.6	106.3	188.4	198.5
수시입출식	34.0	10.9	65.9	189.3	131.0
정기예금	28.8	72.2	48.3	-14.4	41.8
시장성수신 ²⁾	17.7	7.8	-14.6	14.6	33.9
자산운용회사	27.9	53.8	98.6	42.2	93.9
MMF	-7.0	-7.7	15.2	21.0	9.6
주식형펀드	4.2	7.3	2.5	-10.0	18.2
채권형펀드	-8.6	6.4	15.7	-0.4	13.0
기타펀드 ³⁾	39.3	47.8	65.2	31.5	53.0
상호저축은행	6.9	8.6	6.1	13.2	23.3
신용협동기구 ⁴⁾	44.6	39.7	60.7	50.1	69.4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혼합형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높은 증가세 지속

2021년 중 기업대출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2020년과 비슷한 규모로 큰 폭 증가하였다. 은행권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대기업대출도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증가하였다. 비은행권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도 2020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예금은행의 증가규모는 전년보다 축소되었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규모가 큰 폭 확대되고 기타금융기관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대출규제⁴⁾에도 주택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에 그쳤으나 기타대출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에 더해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의 이동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모두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타금융기관도 생활자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전년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표 1 - 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대출	72.2	81.8	90.2	169.6	171.5
은행	40.4	46.7	47.7	110.8	94.1
대기업	-3.7	6.9	-1.8	20.9	9.0
중소기업	44.0	39.8	49.4	90.0	85.1
비은행 ¹⁾	31.8	35.1	42.5	58.8	77.4
가계대출 ²⁾	100.0	76.8	58.3	127.1	123.8
예금은행	43.3	52.4	54.6	82.2	60.2
(주택담보대출)	21.6	30.1	39.7	49.9	45.7
(기타대출)	21.6	22.4	14.9	32.2	14.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³⁾	22.6	6.8	-4.5	7.6	27.6
(주택담보대출)	10.8	-3.9	-10.4	-4.0	9.2
(기타대출)	11.8	10.7	6.0	11.6	18.4
기타금융기관 등 ⁴⁾	34.1	17.5	8.1	37.4	36.0

주: 1)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1)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년 4월 29일, 금융위 발표)」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1단계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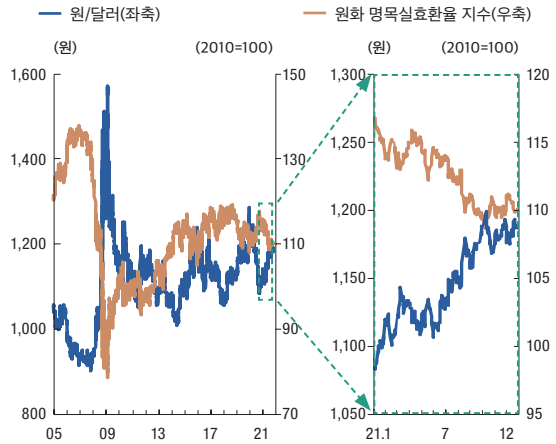
(4)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은 1~5월 중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양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전년 말보다 높은 수준인 1,100~1,140원 사이에서 등락하였다. 6월 이후에는 델타 변이 확산,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부각된 데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대규모 매도, 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외환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여 10월 12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1,198.8원을 기록하였다. 이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기대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수 등에 따른 국내 외환수급 개선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였다. 2021년 말 원/달러 환율은 1,188.8원으로 2020년 말(1,086.3원) 대비 9.4% 상승하였다.

한편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BIS 기준)는 미·일 금리차 확대 등에 따른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기대 등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2021년 말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2020년 말(116.8) 대비 5.9% 하락한 109.9를 기록하였다.

그림 1 - 27. 원/달러 환율 및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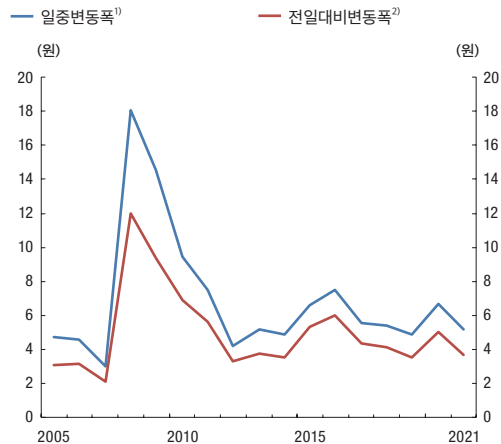


주: 1)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증가,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BIS 발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BIS

한편 2021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일평균 5.2원 및 3.6원으로 2020년(각각 6.6원 및 5.0원) 대비 축소되었다.

그림 1 - 28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1) 일중 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 대비 변동폭(당일 증가 - 전일 증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상승

외환스왑레이트⁴²⁾(3개월)는 2021년 들어 외국인의 국내투자 관련 외화자금 공급 등 상승요인과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 수요, 미국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등락하다가 6월 이후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국내은행의 양호한 미 달러화 유동성 사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11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국내기업의 선물환 매입 관련 외화자금 공급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축소하여⁴³⁾ 2021년 말에는 2020년 말(-0.04%) 대비 0.71% 포인트 상승한 0.67%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⁴⁴⁾(3년)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 및 스왑레이트 상승, 외국인의 금리차익거래목적 외화자금 공급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가 2021년 말에는 2020년 말(0.31%) 대비 0.88% 포인트 높은 1.19%를 기록하였다.

그림 1 - 29.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중개(주), 한국 플랫폼레븐 외국환중개(주)

42)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43) 12월 중에는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자금운용 등 계절요인의 영향으로 외환스왑레이트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44) 통화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리보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

QR BOX



QR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3월)



QR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6월)



QR 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9월)



QR 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



QR 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2년 3월)



QR 6

지역경제보고서
홈페이지